

인도네시아 ‘마카시드’ 이슬람경제 추구*: 자캇과 자캇노믹스 실천

최 경 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캇과 자캇노믹스 실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운동은 처음부터 이슬람경제 원리에 충실했던 운동이라기보다는 다수 빈곤층을 위한 경제적 요구, 소수세력에 의한 부의 집중이 갖는 문제를 제기하는 민중경제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동시에 다양한 무슬림 조직과 학생그룹에서 이슬람경제 세미나 활성화 및 이슬람 금융원리에 기초한 은행 및 금융제도 등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1991년에 발족한 최초 무아말랏이슬람은행(BMI)은 수하르토를 중심으로 한 정부 및 관료 그룹, MUI와 ICMI로 집결된 이슬람학자와 지식인 그룹, 이슬람경제 운동을 시도했던 시민사회 그룹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슬람경제 운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자캇포럼(FOZ)은 1999년 최초 자캇법이 만들어지는데, 현격한 공헌을 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현재 자캇실천의 기본구조인 BAZNAS와 LAZ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질적 전환은 조코위 2기 정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3036162). 동남아 이슬람금융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이 연구의 진행에 도움을 준 오명석 연구책임자 교수님과 김병호, 김형준, 이선호, 이지혁, 이충열 선생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kalli@snu.ac.kr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샤리아경제마스터플랜’으로 나타난다. 이슬람 은행 및 금융의 범위를 넘어서 산업 전반으로 이슬람경제 원리를 확대 적용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자캇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자원을 통해 자캇노믹스 개념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추구하는 마카시드 이슬람 경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세 행위자 그룹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최종적으로 자캇노믹스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대하는 만큼 현실에서 자캇기금이 모아질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향후 인도네시아 마카시드 샤리아경제 추구가 빈곤문제 해결,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행위, 사회복리적인 경제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마카시드, 자캇, BAZNAS, LAZ, 자캇노믹스, 샤리아경제마스터플랜

I. 서론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경제¹⁾는 1991년 최초 이슬람은행인 무아말랏은행(BMI, Bank Muamalat Indonesia) 출범을 시작으로, 1992년 이슬람은행법 제정(Law No.7/1992)²⁾, 1998년 이슬람은행법 개정(Law No.10/1998 on Banking), 1999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개정(Law No.38/1999 on Indonesia's Central Bank)과 1999년 자캇에 관한 최초 법률(No.23/1999 on Zakat), 2004년 와크프에 관한 최초 법률(Law No.41/2004 on Waqf), 2011년 자캇에 관한 개정 법률(No.23/2011 on Zakat)과 2015-2019 인도네시아 샤리아은행로드맵

1)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경제’, ‘이슬람금융’ 등을 ‘샤리아경제’, ‘샤리아금융’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 두 용어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전제하고, 인도네시아 맥락과 글로벌 맥락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한다.

2) BMI 출범당시는 ‘이익-공유 원리’가 합법화되지 못하였다. 1992년 이슬람은행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원화된 은행시스템 즉, 이자기반과 이익공유기반 원리 모두 합법화되었다.

(Roadmap of Perbankan Syariah Indonesia 2015-2019), 2019-2024 인도네시아 샤리아경제마스터플랜(Masterplan Ekonomi Syariah Indonesia 2019-2024) 등 일련의 법률마련과 국가정책수립의 과정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하나는 이슬람금융부터 시작하여 경제전반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경제가 자칫 이슬람금융에 국한하여 실천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전반으로 이슬람경제의 원리를 확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슬람경제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경제는 공정과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경제행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경제 정신을 담은 개념이 ‘마카시드(Maqasid-al Shari’ah)’인데, 마카시드를 구현하는 최고의 종교적 실천이 자캇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캇이 빈곤해소와 사회복지, 경제적 복리와 경제적 사회정의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마카시드’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종교적 덕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경우, 자캇에 관한 법의 제정과 개정, 제도화를 통해 마카시드 이슬람경제 추구를 중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회는 ‘공정’과는 반대인 부패가 심각한 사회이고,³⁾ 경제적인 의미에서 사회정의가 구현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빈곤의 숙제⁴⁾를

3)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0점에서 100점으로 측정되는데, 10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낮은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7년 37점, 2018년 38점이고, 2019년 40점, 2020년 37점으로 부패가 높은 사회이다.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에 2019년 1위가 덴마크이고, 인도네시아 85위, 소말리아가 180위였다. 2020년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180개 국가 중에서 102위로 더 부패가 더 심해진 것이다.

(<https://www.transparency.org/en/countries/indonesia> 검색일: 2021년 10월 20일).

4) 21세기 들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상당히 발전하여 빈곤감소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사례에 속한다. 인도네시아가 중산층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2045년 고소득 국가군에 속할 것이라는 예측도 갖고 있었지만, 코로나19팬데

안고 있다. 그래서 마카시드 이슬람경제를 추구하는 인도네시아는 향후 부패를 극복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적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에서 자캇과 자캇노믹스(Zakatnomics) 실천을 주목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는 자캇실천의 과정에서 자캇노믹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진화하고 있다. 자캇노믹스는 마카시드 이슬람경제를 구현해 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사회재분배 및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자캇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자캇실천은 자캇과 자캇노믹스의 유기적 연계성, 민간차원과 국가차원에서 동시에 실천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되는 자캇실천의 제도적 특징과 자캇노믹스가 갖는 의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인도네시아 자캇은 이슬람경제 운동 전개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가? 인도네시아 자캇실천의 제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인도네시아는 자캇노믹스개념으로 거시적 차원의 자캇실천을 수행하려고 하는가 등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을 찾고자 다음과 같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 이슬람경제와 자캇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캇 연구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 운동역사에서 자캇의 발생적 맥락을 설명하고, 자캇실천의 기본구조인 BAZNAS-LAZ의 기

믹의 영향은 매우 크다. 2020년 국가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가 9.8%이다. 하루에 2달러 아래의 소비능력을 갖고 있는 인구 비율도 3.5%이다. 비교차원에서 라오스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국가빈곤선 아래에 있는 국가는 18.3%이고,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2달러 아래의 소비능력을 갖고 있는 인구 비율도 7.8%이다. 베트남의 경우 2016년 국가빈곤선 아래의 있는 사람이 5.8%,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2달러 아래의 소비능력을 갖고 있는 인구 비율도 1.9%이다.

(<https://www.adb.org/countries/indonesia/poverty> 검색일: 2021년 10월 20일)

본 구조와 특징, 자캣의 수집과 분배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경제전환전략의 하나인 샤리아경제의 구조와 그 속에서 작동하는 자캣노믹스의 원리와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을 통해서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기존연구

7세기부터 시작된 이슬람이지만 이슬람경제(Islamic Economics)에 관한 학적담론은 근대적 산물이다. 자캣은 이슬람 사상과 종교철학적 의미와 이슬람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슬람경제에서 자캣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 인도네시아의 자캣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이슬람경제와 자캣

이슬람경제 개념은 마우두디(Sayyid Adul A'la Maudūdi)⁵⁾가 1941년 “인류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와 이슬람적 해법(Mankind's Economic Problems and Their Islamic Solutions)”이란 글을 발표하면

5) 마우두디(1903-1979)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이슬람 사상가이다. 1920년대 무슬림 공동체(Muslim Ummah) 재건운동을 시작으로 이슬람사상을 발전시켰다. 1929년 『Law of War and Peace in Islam』 첫 저서를 쓴 이래, 1979년까지 140여권 이상의 책과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슬람경제철학의 창시자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칼 맑스(Karl Mark)가 전제로 삼고 있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호모 이슬라미쿠스(homo Islamicus)를 제창했다. 즉, 경제에 관한 인간적, 정의로운 그리고 효율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복지와 필요의 충족이라는 개념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신성에 기초한 인간의 경제원리 즉, 이슬람 경제원리를 체계화하였다. 그는 1930년대부터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집대성하여 영어본이 1969년 발표된 『First Principles of Islamic Economics』이다(Ahmad 2011).

서 시작되었다. 본 글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경제원리가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제이론도 인류가 직면한 실제적인 경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마우두디는 경제행위에 대한 분절적 생각, 비윤리적 접근, 개별주의적 접근을 경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과도 같다. 그는 이슬람을 삶의 총체적인 방식(a complete way of life)이라고 강조한다. 이슬람은 보편 종교(universal religion)의 하나이고, 무슬림 움마(Muslim Ummah)는 글로벌 공동체의 하나이고, 무슬림 움마는 ‘믿음 공동체’이다. 이러한 신앙공동체는 ‘신의 유일성(Tawhid, the Oneness of God)’ 개념의 근거하는 것이고, 신의 유일성은 보편적 통일, 인류의 하나됨, 삶의 개별성, 이슬람법과 가치의 보편성을 형성하는 것이다(Ahmad 2011). 따라서 인간의 경제적 행위는 이러한 신성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이슬람경제의 핵심적 전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드리는(Masudul Alam Choudhry)는 이슬람경제는 ‘이슬람 사회경제(Islamic Social Economy)’이고, 이러한 경제행위는 ‘신-인지적인(God-Conscious)’ 조직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Choudhry 2016).⁶⁾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마우두디는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관점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경제는 인간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웰빙(well-being)과 필요를 충족해야하기에 인간적이며, 정의로우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둘째, 인간 삶과 사회는 모든 측면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매우 중요한데, 효율성은 공정(equity)과 정의(justice)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6) 초드리는 ‘신의 유일성’ 인식에 기초한 경제행위가 갖는 의미를 8가지로 설명한다.

1) 유일신에 대한 믿음 2) 초월성 3) 역사적 위임 4) 인간의 존엄성 5) 공동선 추구와 자연적 부의 보편적 목적 6)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택 7) 비즈니스 단위들의 상호의존성 8) 경제행위의 최종 종착지와 목적이다(Choudhry 2016).

넷째, 쿠란(Quran), 순나(Sunnah) 등 이슬람 경전에 있는 경제적 원리들은 현대 경제적 현상과 행위를 설명하는데 기초가 된다. 다섯째, 화폐는 경제에 있어서 매개물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Ahmad 2011). 그리고 이 가운데 다섯 번째 원리가 ‘이슬람금융’으로 발전되어 나왔다. 이슬람경제학자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화폐경제’와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에 있다고 본다. 이에 이슬람 금융은 실제 또는 실물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소외받지 않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 보았을 때, 이슬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철학적 원리는 바로 경제의 사회적 기능으로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본질적 수단이 무슬림의 5가지 종교적 실천의무의 하나인 바로 ‘자캇’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우두디는 『이슬람경제의 제1원리(First Principle of Islamic Economics)』에서 ‘이자(interest)’ 만큼 ‘자캇’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쿠란에도 자캇에 대한 언급과 선지자들에 의한 자캇 독려 메시지-Q.S. 21:73, Q.S. 19:54, Q.S. 2:83, Q.S. 5:12, Q.S. 19:31(예수), Q.S. 98:5 등-는 상당히 많다. 아래는 쿠란 중에서 이자(usury)와 자캇과 관련된 문구의 예이다.⁷⁾

“하나님은 이자의 폭리로부터 모든 축복을 앗아가 자신의 행위에 더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모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Allah condemns usury, and He blesses charities. Allah does not love any sinful ingrate.”(Q.S. 2:276).

“그들 재산 중에서 자선금을 받으라. 그로하여 너희는 그들을 정확하고 순화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예배하라 실로 그대의 예배

7) 본 글에서 인용하는 쿠란의 문구는 BAZNAS CSS의 『The Concept of Zakatnomics』(2019)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캇 관련 구절을 쿠란 번역본인 『성 꾸란』(파하드 국장 성 꾸란 출판)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술하였다.

는 그들을 위한 평안함이 되리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Receive contributions from their wealth, to purify them and sanctify them with it, and pray for them. Your prayer is comfort for them. Allah is Hearing and Knowing.”(Q.S. 9:103).

위에서 언급된 첫 번째 쿠란의 인용 문구는 바로 이자(usury)의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자선(charities)의 행위와 대비하는 구조로서, 자선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쿠란의 인용 문구는 자신의 부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그 부를 정화시키며, 그 행위자체는 종교적으로 예배적 의미이며 정의로운 사회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카트는 전체 이슬람 사회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행위로서 이슬람 종교적 실천행위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BAZNAS CSS 2019: 15-16).

자카트는 이렇듯 이슬람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자카트운영이 각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단은 1884년 마디아(Mahdia) 왕조시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자카트를 운영한 최초의 사례로서 자카트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운영하는 체제이다. 파키스탄은 1954년 헌법에서부터 자카트에 대한 법규가 명시된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다. 파키스탄 자카트의 실질적 운영은 비정부조직, 비영리조직이 주로 담당하고,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51년 자카트 의무시스템을 만들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카트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르단은 최초 이슬람 국가를 탄생시켰고, 1944년 요르단 왕국에서 자카트법을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요르단 무슬림의 의무사항이었다. 1953년 자카트를 사회 서비스 세금으로 규정되었고,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였다. 방글라데시는 1982년에 제정된 자카트 기금 법령에 기초하여 자카트협의

회(Zakat Council)가 모금, 분배, 운영한다. 쿠웨이트는 자카트운영을 두 정부 기관인 ‘와크프와 이슬람부(Ministry of Waqf and Islamic Affairs)’와 ‘사회노동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Labor)’에서 수행한다. 이집트에서는 자카트를 모으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4개의 주요 기관의 네트워크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카트 관리의 최고 권위기관은 연방차원의 ‘이슬람종교위원회(Islamic Religious Council)’이고, 위원회는 독립된 두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카트징수청(PPZ)’과 ‘바이툴 마알(Baitul Maal)’이다. 전자는 자카트를 모으고, 후자는 자카트를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BAZNAS CSS 2019: 106-111). 이렇듯 무슬림 기반한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자카트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인도네시아에서의 자카트연구

인도네시아 자카트연구의 가장 본질적인 방향은 자카트가 이슬람경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갖고 있으며 진정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가이다. 자카트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Malik 2016), 자카트를 통해 사회시스템이 어떻게 강화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AL-Faizin et al. 2017) 등이다. 현대 자카트에 관한 이론적 토대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유스프 카르다위(Yusuf Al Qardawi)의 책 *Fiqh Al Zakah*(Fatawa al Zakat)이 있다. 자카트의 비교연구, 쿠란과 순나에 나타난 자카트에 대한 철학과 법제도에 관한 자카트에 관한 총서로서 인도네시아 자카트연구의 사상적, 이론적 토대로서 많은 연구에서 이 책이 언급되어 있다. 현대 인도네시아 자카트에 관한 모든 연구는 자카트가 이슬람의 종교적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카트가 빈곤해소와 사회적 복지, 경제적

복리에 기여한다는 것을 담론적 차원에서 전개하거나, 경험적 방법을 통해 증명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카트와 ‘마카시드(Maqasid-al Shari’ah)’ 관계는 중요하다. 이슬람 사상에 기초해서 보았을 때, 마카시드는 이슬람 제도, 즉, 이슬람공동체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다. 마카시드 이슬람공동체는 믿음, 삶, 후계, 지적활동, 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빈곤’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실천행위를 자카트로 보고 있다. 즉, 종교적 자카트실천행위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효과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에 자카트와 소득 재분배효과(Possumah 2016), 자카트와 빈곤완화 효과(Ariyani 2016), 자카트제도와 재분배, 빈곤, 수요창출의 경제적 기능(Shaikh 2018) 등은 자카트를 통해서 빈곤완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에 기여한다고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자카트제도가 빈곤해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마카시드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확대적용하여 이슬람협력기구(OIC)의 회원국의 자카트와 빈곤완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Shaikh 2016), 자카트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의 관계 분석(Shaikh et al. 2017) 등 자카트제도의 글로벌 효과성 연구와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 창출에 있어서 자카트의 역할에 관한 연구(Billah 2016) 등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BAZNAS와 LAZ 등 자카트운영기관, 자카트제도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Adachi 2018; Kasri et al. 2018; Ayuniyyah et al. 2020; Atiya et al. 2020).

최근 자카트연구는 자카트의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로 활성화하고 있다. 자카트를 포함한 샤리아경제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서, 자카트제도에 블록체인(Blockchain)의

적용가능성(Rejeb 2020), 자캇에 기반한 클라우드펀드 플랫폼모델(Zakat-based crowdfunding platform model)과 중소기업(MSMEs) 연관성 연구(Sulaeman 2020) 등이다. 자캇제도와 디지털 기술에 관한 상관성과 상호연결성,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해졌다.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더 쉬운 방식이지만, 많은 인도네시아인은 자캇을 포함하여 아직 이 방법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무자키(Muzakki)가 온라인 방식으로 자캇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장애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최근 연구가 있다. 전통적 장애요인, 이미지 장애요인, 기능적 장애요인, 가치 장애요인, 위험 장애요인과 온라인 자캇결제(Online Zakat Payment)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능적 장애요인이 온라인 자캇결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장애요인으로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결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전달 및 홍보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Hanafi 2020).

인도네시아는 BAZNAS를 만든 이후, 자캇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BAZNAS 전략연구센터(BAZNAS Pusat Kajian Strategis)⁸⁾’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⁹⁾ 또한 ‘자캇인덱스(Zakat Index)’를 생산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인도네시아가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⁰⁾. 정리하자면, 최근 10여년 동안 인도네시아 자캇연구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8) BAZNAS Pusat Kajian Strategis를 영어로 표현하면, BAZNAS Center of Strategic Studies이고 약어로 말하면, BAZNAS CSS이다. BAZNAS CSS 영어 약어를 인도네시아말로 하면, Puskas BAZNAS이다.

9) Puskas BAZNAS에서는 2016년부터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을 처음으로 출간했고, 2017년부터 1년에 2번씩 발간하고 있다.

10) 2017년부터 World Zakat Forum을 개최하고 있고, 2020년에는 “Post-Covid19 Economic Recovery: The Role of World Zakat Forum”란 시기적절한 주제로 11월 30일에서 12월 1일에 진행되었다(<https://puskasbaznas.com/>(검색일: 2020년 12월 9일)).

Ⅲ.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운동과 자캇의 법제도화

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 운동역사에서 자캇 제도화의 발생적 맥락과 기원을 분석하고, 자캇실천의 기본적인 법제도화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민중경제로서의 이슬람경제운동

이슬람경제운동(Gerakan ekonomi Islam)은 경제시스템의 이슬람화를 위한 조직화된 개인, 단체의 요구와 투쟁을 의미한다.¹²⁾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경제운동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사이푸딘(A. M. Saefuddin)은 이슬람 경제운동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1976년 메카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국제 이슬람경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lamic Economics)’에 당시 마슈미(Masyumi)의 리더였던 낫시르(Mohammad Natsir)의 초대로 참여하게 되었다.¹³⁾ 그 이후 그는 세계은행(World Bank),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을 거친 이후 농업발전센터(PPA, Pusat Pengembangan Agribisnis)를 창설했다. 당시 이슬람경제운동은 이슬람경제 원리에 기초한 운동이라기보다는 민중경제(ekonomi

11) 201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자캇실천 활성화 또는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지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자캇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본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를 전반적으로 알리는 연구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자캇을 소개한 연구(김형준 2011; 전제성 외 2014) 등이다.

12) 1980년대부터 이슬람경제운동을 이끌어왔던 여러 운동단체나 조직들이 플랫폼 조직인 샤리아경제사회(MES, Masyarakat Ekonomi Syariah)를 2001년에 만들었다. MES는 현재 민간영역에서 샤리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MES의 목적은 “이슬람 규칙에 일치하는 모든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Choiruzzad et al. 2013).

13) 그와 더불어 초기 이슬람 경제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인 4명-Amin Azis, Abdillah Thoha, Adi Sasono, Dawam Raharjo-과 함께 PPA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kerakyatan)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즉, 수하르토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민중경제로서 이슬람경제를 추구했다. 왜냐하면, 수하르토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정책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다수의 가난한 이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에 수하르토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이슬람 경제는 민중을 위한 경제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사이푸딘에 따르면, 당시 이슬람경제의 핵심적 동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과 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Choiruzzad 2013: 132). 다시 말하자면, 당시 이슬람경제 운동은 수하르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다수 민중을 위한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슬람경제운동은 무슬림 조직들과 대학 내 학생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슬람의 정치활동을 억압했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 활동가들은 대학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보고르, 반둥,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그리고 다른 큰 도시의 대학에서 이슬람 경제에 대한 비공식적 토론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83년 반둥 이슬람 대학(UNISBA, Universitas Islam Bandung)에서 최초로 ‘전국 이슬람 경제 컨퍼런스(National Conference on the Islamic Economy)’가 개최되면서 이슬람 경제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본 컨퍼런스 이후 1984년 학생그룹이 ‘금융의 집(House of Finance)’이란 의미를 갖는 ‘Baitut-Tamwil Teknosa’를 창설했다. 일반 관행은행에서 사용하는 이자원리가 아닌 ‘손익공유(risk-profit sharing)’ 개념을 기초하여 금융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Koperasi Ridho Gusti (the Lord’s Blessings Cooperatives)’, 이슬람적 저축과 금융생활을 도모하는 ‘Baitul Maal Wat Tamwil(Islamic 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 등이 시도되었다(Choiruzzad 2013: 134).

인도네시아 국내 차원에서¹⁴⁾ 획기적인 의미 변화를 갖게 된 것은 수하르토가 이슬람세력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다 (Choiruzzad 2013: 142).¹⁵⁾ 수하르토는 1980년대 전개된 이슬람경제 운동을 지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위협으로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운동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수하르토로 대표되는 국가와 이슬람경제운동을 주도하는 이슬람학자들과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1980년대가 되면 인도네시아 올라마 위원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¹⁶⁾의 기능은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져 가고 있었다. 종교적 결정(fatwas)을 통해 무슬림 그룹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MUI를 통해서 성장하는 무슬림 중산층과 무슬림 지식인의 영향력을 국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1986년에 MUI가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한 소통포럼(FKPI, Forum Komunikasi Pembangunan Indonesia)’을 만들었고, 무슬림 지식인의 요구와 이해가 소통되는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1989년 FKPI 토론에

14) 인도네시아에서 1980년대 이슬람 경제운동이 시작된 국제적 이유는 1970년대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이슬람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73년 이슬람 개발은행(IDB, Islamic Development Bank) 출범을 시작으로 1975년 두바이 이슬람 은행, 1977년 아부다비 이슬람 상업은행, 1977년 파이잘 이슬람 은행 등이 만들어졌고, 1981년 말레이시아에 Darul Mal al-Islami 이름을 갖은 이슬람은행이 출범했던 시기이다. 당시 수하르토는 국제적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OIC와 IDB 등을 외교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하였다.

15) 그렇다면, 수하르토는 왜 이슬람세력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였는가? 이러한 질문도 제기해볼 만한하다. 가능한 이유의 하나로 당시 군부가 최고 권력지도층으로 다수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하르토의 자녀들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하나는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이슬람화된 도시중산층의 영향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Choiruzzad 2013: 149).

16) 수하르토가 1975년 MUI를 만들었다. MUI는 종교적 권고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 이전 1965년에는 아체올라마위원회(Aceh Ulama Council)가 있었는데, 전국적 차원의 제도는 MUI가 처음이다(Saat 2018).

서 ‘실질적인’ 이슬람 금융제도 설립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1990년 5월 MUI 회의에서는 이자를 둘러싼 격론이 NU와 무함마디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MUI는 이슬람경제운동의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Choiruzzad et al. 2013: 962). 또한 1990년 인도네시아 이슬람지식인협회(ICMI, Ikatan Cendekiawan Muslim Se-Indonesia)가 만들어지면서, FKPI 활동가들은 ICMI에 합류하였다. ICMI의 본령은 1980년대 이슬람경제운동을 했던 무슬림지식인들이다(Choiruzzad 2013: 131). 결국 많은 무슬림 활동가들은 ICMI와 MUI 두 곳 모두 연관되어 활동하였다. 인도네시아 최초 이슬람은행인 BMI는 이슬람경제운동을 주도했던 이슬람학자들, 활동가들 노력의 결과이자 수하르토의 허용 또는 적극적인 지원 속에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11월 3일 MUI가 주관한 BMI 자금 마련 행사에 수하르토의 참석으로 주요 정부관료, 사업가 그리고 BI도 이슬람 은행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BMI 탄생을 계기로 국가와 이슬람세력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수하르토와 이슬람 세력 사이의 관계 변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이슬람경제운동이 활성화되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하비비(Habibie)였다. 물론 그는 이슬람경제를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운동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생각이 이슬람경제운동가들과 일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즉, 그동안 인도네시아 경제는 풍부한 자원과 싼 노동력에 기반한 산업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하비비는 이러한 경제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자원 및 노동력 부국이지만, 과학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1976년 항공산업(IPTN, Industri Pewanat Terbang Nusantara) 회사를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나중에 수하르토의 지원으로 국가적 차원의

일이 되었다. 하비비는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였고, 이것이 인도네시아 민중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ICMI와 이슬람경제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하비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과학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 민중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 즉 민족주의 경제(nationalist economics)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민중경제이자 민중을 위한 경제가 다시 이슬람경제로 연결된다고 보았다(Choiruzzad 2013: 151). 자원과 싼 노동력에 기반 해서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로 소수의 기업들만 이득이 돌아가는 경제시스템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민중을 위한 경제시스템으로서 민족경제, 민중경제 그리고 이슬람경제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하비비와 ICMI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이슬람경제운동은 토착 원주민(pribumi)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존 경제적 기득권층의 주류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 출신의 성공한 기업가들을 양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BMI 출발도 이러한 기업들의 출자로 시작되었다. 수하르트 정부기간 동안 국가의 많은 자원들이 중국계 비즈니스맨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슬람경제의 활성화는 원주민 출신 비즈니스맨들에게로 국가자원이 돌아갈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제적 독점력은 구조적인 문제였고, 이슬람경제운동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2. 자카포럼과 BAZNAS와 LAZ의 제도화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운동의 중요한 흐름의 하나가 자카포럼(FOZ, Forum Zakat)의 출현이다. Dompot Dhuafa Republika 단체가

1997년 7월 “Zakat of the Public Company”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관련 민간 및 정부 소속 자캣 단체가 100여 개 이상 모였다. 세미나 이후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연합을 결성할 것을 합의해서 FOZ가 탄생한 것이다.¹⁷⁾ FOZ는 ‘정부소속 자캣단체(BAZ, Badan Amil Zakat)’와 ‘민간 자캣단체(LAZ, Lembaga Amil Zakat)’의 연합으로 만들어졌지만, LAZ가 곧 FOZ의 주류가 되었고, FOZ의 의장은 LAZ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 당시 FOZ는 BAZ와 LAZ의 전국위원회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자캣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서 이러한 기능은 BAZNAS로 넘어갔고, FOZ는 약 10여 년 이상 이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FOZ는 컨설턴트, 코디네이터 그리고 정보제공자 기능을 통해 자캣기관들이 수준 높은 자캣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FOZ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종교부(MORA,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가 최종적으로 자캣기관으로 인정하기 이전단계까지 자캣기관으로 적당한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세 번 있었던 FOZ 전국 회의는 1999년 자캣에 관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까지 주요 쟁점들이 오고 간 곳으로(Salim 2008: 40-41),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수하르토 체제가 붕괴되고 하비비 대통령이 통치하는 1998년 5월에서 1999년 10월까지 과도정부시기 동안에¹⁸⁾ 자캣법(Undang-Undang RI Nomor 38 Tahun 1999 Tentang Pengelolaan Zakat, No.38/1999 on Zakat)이 최초로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FOZ

17) FOZ를 탄생시킨 11개 기관은 Dompot Dhuafa Republika, Bazis DKI Jakarta, Baitul Maal Pupuk Kujang, Baitul Maal Pupuk Kaltim, BAZIS Pertamina, BDI PT Telkom, Bapekis Bank Bumi Daya, LKS Bank Muamalat Indonesia, Bapeohis Hotel Indonesia, PT Internusa Hasta Buana, Sekolah Tinggi Ekonomi Indonesia이고, 여기서 중추적인 기관이 Dompot Dhuafa Republika 이다(Salim 2008: 76).

18)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슬람경제는 한 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하비비 대통령 과도정부에서 자캣법 외에 1998년 이슬람은행법 개정(Law No.10/1998 on Banking), 1999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개정(Law No.23/1999 on Indonesia's Central Bank)도 입법화되었다(Choiruzzad 2013: 155).

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FOZ와 같이 전국적 단위의 자캇 연합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미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자캇실천이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이 탈정치화되면서 교육받은 중산층 개혁주의 무슬림은 관료, 전문직,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면서 LAZ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캇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정의를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Retsikas 2014: 341). 자캇은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포진해 있는 빈곤을 해소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⁹⁾ 또한 파우지아(Amelia Fauzia)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캇이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이유로 사회정의를 위한 이슬람적 박애주의(Islamic philanthropy)의 열망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슬람적 박애주의는 ‘이슬람적 전통’과 ‘토착문화적 전통’ 두 가지가 결합된 현대적 현상으로 ‘박애’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실천되어왔던 전통적 방식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다(Fauzia 2017).

현재 인도네시아에 적용되는 자캇법(Undang-Undang RI Nomor 23 Tahun 2011 Tentang Pengelolaan Zakat, No.23/2011 on Zakat)은 2011년에 개정된 것이다. 2001년 1월 17일 대통령 시행령으로 ‘국가 자캇관리위원회(BAZNAS, Badan Amil Zakat Nasional)’가 만들어졌다(Ayuniyyah et al. 2020). 2011년 자캇법률은 자캇의 모금, 분배 그리고 활용을 위한 계획, 집행, 조정하는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BAZNAS는 자캇운영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담기관이고,²⁰⁾ 자캇운영

19) 이러한 인도네시아 사회현상은 성(the sacred)과 속(the profane)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뒤르케임의 사회과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다(Retsikas 2014).

20) BAZNAS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캇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는다. 그 기능으로는 자캇 모금, 분배, 증진에 관한 계획, 집행, 조정, 보고 등 자캇운영에

기관(LAZ)은 자캇의 수집, 분배, 운영을 맡고 있는 민간기관을 말한다.²¹⁾ 그리고 자캇수집단위(UPZ, Unit Pengumpul Zakat)는 BAZNAS가 자캇을 모을 때, 지원하는 단위를 말한다. 1999년 자캇 법률에는 BAZNAS, LAZ, UPZ 기관과 단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었고, 2011년 자캇법률체계에서 완료된 형태이다. 그래서 현대 인도네시아 자캇운영체제라고 한다면, 국가적 수준에서는 BAZNAS가 있는 것이고,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LAZ단위가 있으면서, BAZNAS와 LAZ의 협력체제로 자캇이 운영된다. 그리고 자캇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는 역시 종교부(MORA)이다. 이러한 법률체계를 확립한 데는 기존에 자캇을 수집하고, 분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 또는 부정적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복지와 정의를 위한 책무로서 자캇이 기능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고, 자캇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1999년 자캇법률과 2011년 자캇법률의 현격한 차이는 바로 BAZNAS가 전국적인 단위로 체계화되었다는 것이다. 34개 주(Propinsi)별로 BAZNAS가 존재하고, 그 다음의 행정단위인 카부파텐(Kabupaten)과 코타(Kota) 차원에도 BAZNAS가 체계화되었다는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다. BAZNAS는 최소 1년에 1회 국회에서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BAZNAS는 11명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올라마학자, 교수, 이슬람 사회에서 덕망받는 사람(tokoh masyarakat Islam) 등이고, 정부위원은 자캇운영과 관련한 공무원이다. 임기는 5년이고 재선될 수 있고,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BAZNAS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2011년 자캇법률 내용에서 BAZNAS 위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흥미로운 지점은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 21) 다음으로는 시민사회에서는 LAZ가 자캇의 모금, 분배, 운영할 수 있다. LAZ의 설립은 장관 또는 장관에 의해 지명된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최소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교육, 선교, 사회적 기능을 하는 이슬람 시민조직으로 등록된 단체이거나, 법인단체이거나, BAZNAS가 추천한 단체이거나, 종교적 감독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적, 재무행정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거나, 비영리적이며, 공공복지를 위한 자캇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주기적으로 회계를 받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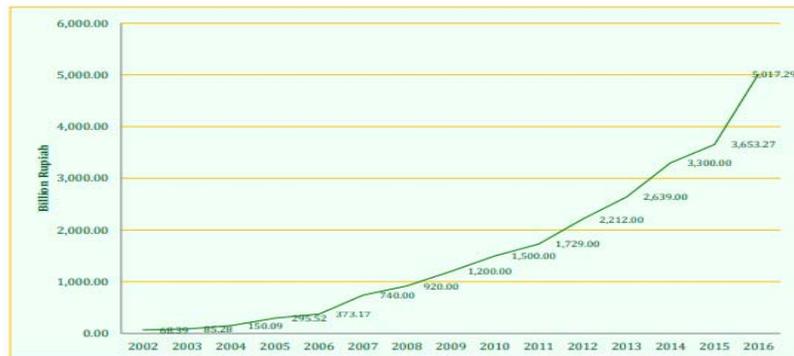
점이다.²²⁾

인도네시아에 적용되는 자캣실천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자캣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무자키(Muzaki)라고 하고, 자캣을 받는 사람을 무스타히크(Mustahik)이라고 한다. 자캣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자캣 마알(zakat maal, zakat al-mal, zakat harta)과 자캣 피트라(zakat fitrah, zakat al-Fitr)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일상시기에 지불되는 자캣이라고 한다면, 자캣 피트라는 라마단(Ramadan)과 이 둘 피트리 기간에 내는 자캣이다. 자캣 피트라는 BAZNAS의 설명에 따르면, 1인, 1일 기준으로 2.5kg 상당의 쌀 또는 3.5ℓ에 해당되는 양의 음식이다. 이러한 기준은 2014년 MORA 법률, 2020년 BAZNAS 관련 법률, 부카리(HR Bukhari Muslim)와 카르다위(Shaik Yusuf Qardawi) 등의 견해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자카르타주(DKI) BAZNAS 규정에 따르면, 현금으로 자캣 피트라는 1인 1일 기준으로 40,000루피아로 규정하였다. 2011년 자캣법령에 자캣 마알로 ①금, 은, 귀금속 등 ②현금 및 증권 ③보유한 물건 또는 팔수 있는 상품(perniagaan) ④농산물, 수산물, 채집물 ⑤가축 ⑥ 채굴물 ⑦공산품 ⑧재화와 서비스 ⑨리카즈(rikaz) 등이다. BAZNAS는 이러한 규정도 카르다위(Shaik Yusuf Qardhawi)의 Fiqh uz-Zakah에 기초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카르다위가 제시한 9가지와 현재 인도네시아 2011년 자캣법령에 나와있는 것이 일대일로 똑같지는 않다. 다음으로 자캣 마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법률에 정해져 있고, 자캣을 계산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니삽(nishab)에 따라 자캣 마알이 계산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낙타를 보유하고 있다면, 낙타의 니삽은 5~9마리이고, 이에 해당되는 자캣 마알은 1마리의 양 또는 염소이다. 소유한 낙타 수가 적어도 25~35마리일 때, 낙타로 자캣 마알을 지불할 수 있다. 25~35마리 낙타일 경우, 1~2년 된 암컷 낙타

22) <https://baznas.go.id/profil> 검색일: 2020년 12월 11일

1마리가 자캇 마알이다. 그리고 금의 경우 2.5%× 1년간 모은 총 금 (또는 은)의 양이다. 예를 들어, 1년간 금 100g이 모아졌고, 1g당 800,000루피아의 가치라고 한다면 총 80,000,000루피아이고, 거기에 2.5%로서 2,000,000루피아가 된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현금 소득에 대해서도 니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빚을 제외하고 2.5%를 적용한다(BAZNAS CSS 36-37). 이렇듯 무자키가 얼마의 자캇 마알을 내야 하는지는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주고 관리해 주는 기관이 BAZNAS와 LAZ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표 1> 2002-2016년 인도네시아 자캇 국가총계



출처: BAZNAS CSS. 2018. *Indonesia Zakat Outlook 2018*. p.18.

자캇에 관한 법률이 1999년 최초 만들어진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자캇 총계는 2002년부터 측정되기 시작했다. 위의 <표 1>을 보면, 2002년 당시는 매우 미비한 수준으로 시작해서 2007년에 이전 년도에 비해 한층 발전된 총계를 보였고,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에서 2016년도 사이에 한 번 더 경증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자캇 국가총계는 약 5조 루피아 정도이다. 그리고 2020년 *Indonesia Zakat Outlook*을 보면, 자캇 국가총계는 2017년 6.2조 루피

아, 2018년 8.1조 루피아에 달한다(BAZNAS CSS 2020: 23). 그리고 2021년 *Indonesia Zakat Outlook*을 보면 2019년에 자캇 국가총계는 10.2조 루피아에 달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캇의 분배 규모를 보면, 2018년의 경우 8.1조 루피어를 모아서 6.8조 루피어를 분배했고, 2019년의 경우 10.2조를 모아서 8.6조 루피어를 분배하였다(BAZNAS CSS 2021: 46).²³⁾ 계속적으로 자캇에 관한 국가총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자캇 국가총계의 현실은 기대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모아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인도네시아 자캇운영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시민주도적이거나 국가주도적인 일방적인 성격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모델의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델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시민사회 내에 다양한 자캇운영기관인 LAZ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적극적인 실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BAZNAS의 *Indonesia Zakat Outlook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캇 모금과 분배 기능을 0에서 4로 구간을 나누고, BAZNAS, 주단위의 BAZNAS, 카부과 텡과 코따단위의 BAZNAS, LAZ 그리고 그 밖의 기관으로 자캇을 실천하는 주체를 나누어 어느 단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LAZ의 자캇 모금기능이 1위로 나왔다(BAZNAS CSS 2020: 22).

23) 2018년과 201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여진 전체 자캇기금에서 각각 83.9%, 84.3%가 분배되었다. 자캇이 사용되는 용처로는 경제, 교육, 보건, 빈곤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IV. 조코위 정부의 경제전환전략과 자캇노믹스

본 장에서는 조코위 정부 시기 동안 체계화된 샤리아경제 전환전략을 설명하고, 그 샤리아경제 속에서 자캇노믹스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²⁴⁾

1. 샤리아경제 전환전략

조코위 정부가 이전 정부와 질적으로 다른 경제정책을 하였다고 한다면,²⁵⁾ 바로 ‘샤리아경제’의 전면적인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장에서도 분석한 것처럼, 조코위 정부를 통해서 샤리아경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데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슬람경제운동의 성과이고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무슬림 지식인, 종교지도자들이 국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배경에

24) 하비비 과도정부 이후 와히드(Abdurrahman Wahid), 메가와티(Megawati Sukarnoputri),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시기에도 이슬람경제를 위한 입법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와히드와 메가와티 어느 누구도 이슬람금융산업이 성장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에 이슬람 은행간 거래(Islamic inter-bank money market)를 허용하는 법을 입법화하였고, 2002년에는 BI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슬람은행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유도요노 정부시기에는 이슬람경제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법-Law No.19/2008 on Sovereign Shari'a Securities (Surat Berharga Syariah Negara), Law No.21/2008 on Islamic Bank, Law No.23/2011 on Zakat-이 입법화되었다(Choiruzzad 2013: 156-157).

25) 2014년 조코위 정부가 직면한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이전 경제시스템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천연자원에 기반한 경제성장 한계, 무역수지 적자, 해외직접투자 적체 등 경제구조 상황이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조코위 정부는 조세개혁도 단행하였다. 그리고 유도요노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프라정책도 계속 추진하였다. 조코위 정부는 ‘디지털 경제’와 ‘해양경제’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 시대에 맞도록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비전을 갖고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스타트업 및 전자상거래 육성정책, 스마트도시 등 관련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대 다도국가답게 경제영토를 바다까지 넓혀서 해양관광 및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경제로 확대한 것도 조코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Siwage 2019).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조코위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샤리아경제’를 설정하고 위로부터의 전환의 경제질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국가와 이슬람 세력’ 사이의 관계가 훨씬 공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하르토와 MUI, ICMI와의 관계는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다른 형태로 더욱 발전하여 국가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슬람세력이 된 것이다(Hasyim et al. 2020). 샤리아경제를 추진하는 이슬람세력이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이미 상당한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전문가 협회(IAEI, Ikatan Ahli Ekonomi Islam Indonesia)’이다. IAEI는 2004년 3월 2일 자카르타 부통령 궁전에서 전당대회를 가졌고, 3일에 인도네시아국립대학 살렘바 캠퍼스에서 발족을 선언했다.²⁶⁾ 당시 IAEI 발족에 서명한 인물에는 당시 중앙은행총재 (Burhanuddin Adullah), DSN-MUI의 의장(Ma'ruf Amin), BAZNAS 위원장(Achmad Subianto)과 학계대표(Dr. Mustafa Edwin Nasution, Dr. Halide와 Dirut BMI A. Riawan Amin 등)가 참석했다. 본 조직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문을 보면, 실질적인 샤리아경제 구현에 대한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학자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IAEI의 대표가 현재 부통령인 아민(Prof. Dr. KH. Ma'ruf Amin)이었고, 부대표로는 국가개발부장관이었던 브로조네고로(Prof. Dr. Bambang P.S. Brodjonegoro)를 시작으로 총 7명의 박사들²⁷⁾로 구성되고, 사무총장은 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48명으로

26) IAEI는 이슬람경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교육단계별 이슬람경제 교육프로그램, 이슬람은행 및 관계 민관기관인 MES, PKES, ASBISINDO, AASI 등 샤리아경제와 관련된 세미나, 교육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27) 부대표 체제는 다음과 같다. Wakil Ketua I : Prof. Dr. Bambang P.S. Brodjonegoro/ Wakil Ketua II : Dr. Perry Warjiyo/ Wakil Ketua III : Prof. Wimboh Santoso, Ph.D./ Wakil Ketua IV : Prof. Dr. Mohamad Nasir/ Wakil Ketua V : Prof. Dr. Suahasil Nazara/ Wakil Ketua VI : Dr. Said Aqil Siradj/ Wakil Ketua VII : Dr. Haedar Nashir 이다(<http://www.iaei-pusat.org/page/dewan-penasehat?language=id> 검색일: 2020년

구성되었다. 이렇듯 조코위 정부 이전부터 샤리아경제의 도입과 실행을 위해 인적구조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이들의 요구와 조코위 정부의 전략은 상호조응할 수 있었다. 특히 브로조네고로 인물은 조코위 1기와 2기 정부의 핵심적인 관료로서 샤리아 경제를 전면화하는데 현격한 공헌을 하고 있다.

조코위 1기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샤리아은행 로드맵 2015-2019(RPS 2015-2019, Roadmap of Perbankan Syariah 2015-2019)’을 발표하여 이슬람금융을 새롭게 고도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조코위 2기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샤리아경제마스터플랜 2019-2024 (MESI 2019-2024, Masterplan Ekonomi Syariah Indonesia 2019-2024)’을 발표하면서 전면적인 샤리아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즉, 금융에 국한한 이슬람경제가 아닌 경제전반의 이슬람경제원리를 적용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RPS 2015-2019’라는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2016년 ‘국가 샤리아금융위원회(KNKS, Komite Nasional Keuangan Syariah)’를 출범시켰다고 한다면, ‘RPS 2015-2019’가 ‘MESI 2019-2024’로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이 마스터플랜을 구현할 단위를 2020년 대통령 시행령(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28/2020)에 따라 KNKS를 ‘국가 샤리아금융 및 경제위원회(KNEKS, Komite Nasional Ekonomi and Keuangan Syariah)’로 변모시켰다.²⁸⁾ 결국 샤리아경제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KNEKS가 탄생한 것이고, KNEKS 내에 조직구조를 보면, 국가기관 속에 MUI가 하나의 구조적 요소로 자리잡은 것이다. MUI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Saat 2008; Hasyim 2019; Saat et al. 2020).

조코위 정부가 샤리아경제로의 전환전략을 선택한 배경을 다음과

12월 13일).

28) <https://knks.go.id/tentang>(검색일: 2020년 12월 9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이슬람경제의 확장세이다. 할랄 음식과 할랄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소비가 2017년에 2.1조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2023년에는 3조 달러 규모로 확장된다는 예측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18.4억 명이라면, 2030년에는 27.5%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방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시장 규모에 있어서 이슬람경제권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향후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자체가 최대 무슬림보유국이라는 점이다. 이 자체가 이슬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둘째, 이슬람경제가 갖는 특성적 요소가 지금 인도네시아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의 과제와 조응하는 것이다. 조코위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시작된 것은 IMF 외환위기 시기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빈곤층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조코위 정부 시기 사회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빈곤층 문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조코위 정부는 경제도 활성화하면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이슬람경제를 활성화하여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루어 내고자 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슬람경제가 성공한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빈곤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인 ‘빈곤’의 문제를 이슬람경제를 통해 돌파하려는 것이다.

MESI 2019-2024에 나타난 조코위 정부의 샤리아경제 목표는 자립적인(mandiri), 풍요로운(makmur) 그리고 민중적인(madani) 인도네시아 경제 구축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샤리아경제 기업규모를 늘리는 것 둘째, 글로벌 이슬람경제지표

(Global Islamic Economy Indicator)내에 인도네시아 국가 순위를 올리는 것²⁹⁾ 셋째, 민중 스스로 경제주체가 되는 중소기업중심의 자립경제(Ekonomi Mandiri)를 활성화하는 것 넷째, 최종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복지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첫째, 할랄가치사슬망 구축을 위해 할랄허브단지 조성, 할랄 인증제 실효화, 할랄 라이프 스타일 캠페인 강화 등이다. 둘째, 샤리아금융의 확장 또는 활성화이다. 올해 2월 인도네시아 샤리아은행(Bank Syariah Indonesia)이 공식출범하였다. BMI 실패이후, 샤리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영은행의 새로운 출발이다.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IFSB, Islamic Inclusive Financial Services Board)를 통하여 이슬람 금융혁신을 창출하고, 이슬람사회금융(Zakat, Infaq, Shadaqah, Wakaf)의 재원들을 거시경제·재정정책과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뒤에서 언급할 자캇노믹스와 연관되는 것이다. 넷째, 샤리아경제에 대한 인식(awareness)증진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이슬람경제운동의 다양한 흐름이 2001년에 ‘샤리아경제사회(MES, Masyarakat Ekonomi Sharia)’라는 플랫폼조직을 만들었다. MES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으로 이슬람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³⁰⁾

2. 국가의 자캇실천으로서 자캇노믹스

BAZNAS 위원인 한 사람인 아흐마드(Ahmad Satori) 교수는 2019년 12월 19일 자캇노믹스(Zakatnomics) 개념을 처음 발표하였다. 그

29) 글로벌 이슬람경제지표(Global Islamic Economy Indicator)는 이슬람금융, 할랄음식, 할랄여행, 무슬림패션, 미디어, 의약 및 화장품으로 6개로 범주가 나누어져서 관련 산업분야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별 순위를 측정하고 있다 (<https://www.zawya.com/giei/>).

30) MES <https://www.ekonomisyariah.org/> (검색일: 2021년 10월 20일)

는 “자캇노믹스는 마슬라하(maslahah)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슬람 교육에 따라 자캇 정신에 기초하여 균형잡힌 삶, 지속가능한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자캇노믹스란 농업, 광업, 제조업, 무역 및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분야에 자캇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³¹⁾ 환원하자면, BAZNAS는 자캇이 국가의 재정정책, 사회안정 및 빈곤해소정책 등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캇노믹스는 자캇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캇이 이슬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자캇의 의미와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BAZNAS와 LAZ의 기본구조에서 자캇노믹스는 우선적으로 BAZNAS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³²⁾ 왜냐하면, BAZNAS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캇을 모으고, 빈곤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캇노믹스는 샤리아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자캇 재원을 사회정책 및 재분배 정책에 활용하는 국가차원의 자캇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자캇노믹스의 기본 관점은 자캇이 국가의 재정정책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정책은 재화와 서비스의 적정할 공급을 위한 분담기능, 소득, 부 그리고 자원의 재분배 기능 그리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

31) <https://www.puskasbaznas.com/news/1107-baznas-pioneers-zakatnomic> (검색일: 2021년 6월 15일)

32) 자캇실천은 기관의 전략적 계획수립과 조직수행 사이에 깊은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Kasri et al. 2018). 그렇기 때문에 BAZNAS의 운영이 정교해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에는 보고(report), 경영(management), 모금(collection), 분배(distribution)기능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무자키와 무스타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분배를 위한 자캇프로그램의 최적화, 규제강화, 인적자원강화, 재원의 시너지효과 제고, 사회화와 교육, IT시스템 강화 등으로 분화발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캇이 빈곤해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분배된다고 할 때, 가장 생산적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자캇의 2/3가 ‘소비-기반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데, 어떻게 ‘생산-기반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Ayuniyyah et al. 2020).

러한 재정정책에서 자캇이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캇이 국가 재정의 하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캇을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국가재정을 필요로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즉, 자캇의 무스타히이 국가가 된 것이다. MUI 또한 국가재정으로 사용되는 자캇이 유용하다는 파트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유한 자산에 2.5%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자캇이기 때문에,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자캇을 내고, 국가는 그것을 빈곤해소 및 사회안정정책에 사용한다면 충분히 재분배효과에도 기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빈곤해소와 사회안정정책에 자캇이 쓰이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음으로 자캇이 사회안정정책에 사용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BAZNAS는 무스타히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자캇 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선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LAZ의 하나인 Dompot Dhuafa도 보건프로그램(Layanan Kesehatan Cuma-Cuma)을 운영하고 있다 (BAZNAS CSS 2019: 84-103). 현대는 불평등한 교육, 보건, 주택 시스템 등이 빈곤을 양산하는 다양한 요인들이다. 이에 자캇 재원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빈곤문제해소와 연관된 사업들이다.

다음으로 자캇이 국가 재정정책에 쓰일 뿐만 아니라 할랄가치사슬(Halal Value Chain)에 단계별로 적용하여 새로운 자본의 흐름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³³⁾와 자캇을 연결하는 자캇노믹스이다. 2019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캇발전과 정부의 역할(The Role of the Government Zakat Development in the Era of Industry Revolution 4.0)” 자료에 따르면,

33)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2018년 Making Indonesia 4.0 Roadmap, 2019년 E-commerce Roadmap, 2020년 Go Digital Vision, Indonesia Payments System Blueprint 2025, 2021 New Normal: Digitalization MSMEs in Indonesia 등 다양한 디지털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할랄가치사슬에 자카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슬람 사회금융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카트를 핀테크 기술³⁴⁾로 지불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서 자카트가 국내외 할랄가치사슬에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카트를 모으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효적이며 효율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카트 계정, 자카트 분배와 분배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여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자카트를 받은 사람인 무스타히크가 자카트를 잘 소비하여, 자카트 소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 있는지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에 해결해야 할 영역인 ‘빈곤해소, 배고픔 해소, 보건, 교육 그리고 불평등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영역에 자카트가 잘 도달하고 최종적으로 목적에 잘 부합하여 사용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결국 자카트가 할랄가치사슬에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의미는 자카트가 모아지고, 분배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효과적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사슬체계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된 것 자카트노믹스는 현실에서 충분히 작동된다고 볼 수 없다. 매우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자카트노믹스의 성공적인 열쇠는 BAZNAS의 역할과 기능에 달려있고, 또 다른 핵심은 얼마나 자카트가 잘 모아지는가에 달려있다. BAZNAS의 *Indonesia Zakat Outlook 2020*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자카트의 잠재성은 기업 자카트에서

34) KNKS는 2019년 핀테크를 통한 샤리아 금융 디지털 지불시스템을 시작하였다. 국영기업 PT Telkomsel의 자회사인 PT Fintek Karya Nusantara(Finarya)와 샤리아 만디리은행, BRI 샤리아은행, BNI 샤리아은행, BTN 4개 국영은행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중에서 3개의 은행이 합병하여 BIS가 2021년 2월에 출범하였으니 한 단계 더 원활한 서비스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 बैं킹이나 스마트폰에 깔린 앱-LinkAja, DANA, Muamalat DIN, OVO, Rumah Zakat 등으로 언제든지 자카트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6.71조 루피아, 소득 자캇에서 139.07조 루피아, 농업 자캇에서 19.79조 루피아, 저축 자캇에서 58.76조 루피아 총 224.33조 루피아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캇 수금액은 2017년에 6.2조 루피아, 2018년에 8.1조 루피아이다(BAZNYS CSS 2020). 2018년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자캇 총량의 예상치와 현실적으로 모아지는 자캇의 대비는 전체 예상치의 3.6% 정도이다. 즉, 실제 모아지는 8.1조 루피아는 전체 기대 예상치 중에서 3.6%로서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이다. 물론, 2001년 BAZNAS가 출범한 이후 2002년부터 측정된 자캇 총량을 보았을 때, 매해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상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Ayuniyyah et al. 2020). 바로 자캇 총량의 잠정적 기대치와 현실에서 모이고 있는 자캇 총량 사이의 이 간극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관건적이다(Al-Faizin et al. 2017). 인도네시아에서 자캇은 현재 종교적 의무이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국가차원에서 자캇실천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캇노믹스는 자캇 총량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현실화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자캇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가 커다란 하나의 쟁점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캇과 자캇노믹스 실천이 갖는 이슬람경제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슬람경제는 쿠란이나 순나 등 이슬람 경전에 있는 경제적 원리를 현실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슬람경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시스템인 것이다. 이슬람의 역사적 전통에는 신앙고백, 예배, 단식, 성지순례, 자카트의 5가지 종교적 의무 중에 자카트이라는 특별한 의미의 종교활동이 이러한 이슬람경제를 구현해 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자기 자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자카트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종교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경제의 목적인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를 추구한다는 마카시드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종교적 의무가 자카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이슬람경제운동이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순수한 이슬람경제원리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당시 수하르토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부정적 결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수 빈곤층을 위한 경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문제를 제기하는 민중경제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이슬람경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슬람경제가 이러한 성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현실적 요구와 필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슬람경제운동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ICMI와 MUI의 역할은 중요해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이슬람에 대한 수하르토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 이슬람경제운동에 대한 허용을 넘어서 1991년 BMI가 출범하는데 기금을 출자할 만큼 수하르토는 큰 관심을 보였고, 이렇게 수하르토와 이슬람 세력 간에 원활한 관계 변화를 이끌고 ICMI를 만들고 이끌어온 하비비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렇게 이슬람경제운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FOZ의 출현은 BAZNAS와 LAZ의 자카트실천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현격한 공헌을 하였다. 1970년대, 80년대 개혁주의적인 무슬림들은 자카트단체들과

연관되어 사회적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들이 1997년 FOZ로 만들어졌고, FOZ는 급변하는 체제이행기인 하비비 과도정부 아래에서 1999년 최초 자캇법이 탄생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1999년 자캇법은 2011년에 개정되어 전국적인 체계에서 BAZNAS와 LAZ의 협력구조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며, 민간영역에서의 자캇실천과 국가영역에서의 자캇실천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이중구조를 만들었다.

이슬람 세력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 첫 사례로 BMI를 본다면, 그 이후 이슬람 지식인, 종교지도자들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들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MUI, ICMI에 이어서 IAEI, MES와 같은 조직들의 영향이다. MES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슬람경제운동의 흐름과 조직들이 모여서 만든 플랫폼 조직이다. 그 중에서도 MUI의 영향력은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판단(fatwa)을 수행하는 MUI 안에 있는 국가샤리아위원회(DSN-MUI), 할랄인증제를 총괄하는 MUI 내 기관 등 MUI는 이슬람경제를 제도화하고 고도화하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코위 정부에서 샤리아경제를 전면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KNKES 내에 MUI는 내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경제가 이슬람은행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조코위 2기 정부에서 샤리아경제로의 전면 확대개편되었고, 그리고 마카시드 이슬람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자캇실천을 놓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캇노믹스는 이러한 자캇실천을 국가 수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캇노믹스의 구현은 현재로서는 많은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아직 계획으로서의 자캇노믹스이지 현실에서 작동하는 자캇노믹스는 아니다. 국가적 실천으로서 자캇노믹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아지는 자캇이 어느 정도의 수

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자캇노믹스의 현실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의 시작으로부터 현재의 샤리아경제 전환전략 구축까지를 추적하였다. 하지만 이슬람경제운동의 역동적인 모습, 이슬람 지식인과 종교지도자들의 내부의 이슬람경제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 등을 추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자캇노믹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목하였지만,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구조인지를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마카시드 이슬람경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식인의 비전이라고 보았을 때, 자캇노믹스는 향후 더 의미있게 현실에서 작동하는 개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형준. 2011.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 강대창 · 박나리 · 김형준 · 홍석준 · 원순구 · 손승호, 『동남아시아 이슬람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3-211.
- 전제성 · 김형준. 2014. “4.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인도네시아 사례연구,” 김형준 · 홍석준 편, 『동남아의 이슬람화 1』. 서울: 놀민. 146-184.
- Adachi, Mari. 2018. “Discourse of Institutionalization of Zakat Management System in Contemporary Indonesia: Effect of the Revitalization of Islamic Econo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3(1): 23-35.
- Aduan, Muhamma Akhyar. 2017. “The Need of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Amil Zakat to Enhance the Future Zakat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2(1): 71-79.
- Ahmad, Khurshid. (ed.). 2011. *First Principles of Islamic Economics*. Leicester: The Islamic Foundation.
- Al-Faizin, Abdul Wahid, Taqiyah Dinda Insani and Tika Widiastuti. 2017. “Zakat as an Obligatory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Psychology of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2(2): 43-53.
- Al-Qardawi, Yusuf. 1985. *Fiqh Al Zakah: A Comparative Study of Zakah, Regulations and Philosophy in the light of Quran and Sunnah*. Monee, IL: MaktabaIslamia Publications.
- Ariyani, Nafiah. 2016. “Zakat as a Sustainable and Effective Strategy for Poverty Allev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Multi-

- Dimension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1(1): 89-107.
- Atiya, Nikmatul, Tika Widiastuti, Eko Fajar Chhyono, Siti Zulaikha and Imron Mawardi. 2020. “A Techno-Efficiency Analysis of Zakat Institutions in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5(3): 30-43.
- Ayuniyyah, Qurroh, Didin Hafidhuddin and Hambari. 2020, “The Strategies in Strengthening the Role of Zakat Boards and Institutions in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5(3): 73-87.
- BAZNAS CSS(Center of Strategic Studies). 2018. *Indonesia Zakat Outlook 2018*. Jakarta: BAZNAS.
- BAZNAS CSS(Center of Strategic Studies). 2019. *The Concept of Zakatnomics*. Jakarta: BAZNAS.
- BAZNAS CSS(Center of Strategic Studies). 2020. *Indonesia Zakat Outlook 2020*. Jakarta: BAZNAS.
- BAZNAS CSS(Center of Strategic Studies). 2021. *Indonesia Zakat Outlook 2021*. Jakarta: BAZNAS.
- Billah, Mohd Ma’sum. 2016. “Creating an Eco-Sustainable Community: the Role of Zakat.”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1(1): 1-16.
- Choiruzzad, Shofwan Al Banna and Bhakti Eko Nugroho. 2013. “Indonesia’s Islamic economy project and the Islamic scholars.” *Procedia Environmental Sciences* 17: 957-966.
- Choiruzzad, Shofwan Al Banna. 2013. “More Gain, More Pain: The Development of Indonesia’s Islamic Economy Movement (1980s-2012)” *Indonesia* 95: 125-172.

- Choudhury, Masudul Alam. (ed.). 2016. *Good-Conscious Organization and the Islamic Social Economy*. London and New York: Routledag.
- Fauzia, Amelia. 2017. “Islamic Philanthropy in Indonesia: Modernization, Islamization and Social Justice.” *ASEAS* 10(2): 223-236.
- Hanafi, Syahrul. 2020. “Does Information affect Online Zakat Payment? A Quant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5(3): 57-72.
- Hasyim, Syafiq and Norshahril Saat. 2020. *Indonesia’s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Under Joko Widodo*. Singparpor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 Hasyim, Syafiq. 2019. “Fatwas and Democracy: MUI and Rising Conservatism in Indonesia Islam.” *TRaNS: Trans-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1-15: 21-35.
- Hasyim, Syafiq. 2020. “New Contestation in Interpreting Religious Texts: Fatwa, Tafsir and Shariah.” Norsharhriil Saat and Ahmad Najib Burhani. (eds.). *The New Santri*. Singparpor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48-63.
- Kasri, Rahmatina A. and Niken I. S. Putri. 2018. “Does Strategic Planning Matter in Enhancing Performance of Zakah Organization? Some Insights from Zakah Management in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3(1): 1-21.
- Malik, Bilal Ahmad. 2016. “Philanthropy in Practice: Role of Zakat in the Realization of Justice and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1(1): 64-77.
- Possumah, Bayu. 2016. “Had Kifayah Zakah and Adequacy of

- Income Redistribution: A Propos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1(1): 36-49.
- Rejeb, Dhiaeddine. 2020.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Application for Zakat Institution: A Conceptu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5(3): 20-29.
- Retsikas, Konstantinos. 2014. “Reconceptualising Zakat in Indonesia,”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42(124): 337-357.
- Rusydiana, Aam Slamet and Nailah. 2020. “Zakat and Technology: A Bibliometric 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5(3): 88-107.
- Saat, Norshahril. 2018. *The State, Ulama and Islam in Malaysia and Indonesia*. Singapor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 Saat, Norshahril and Ahmad Najib Burhani. (eds.). 2020. *The New Santri: Challenges to Traditional Religious Authority*. Singarpor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 Salim, Arskal. 2008. *The Shift in Zakat Practice in Indonesia: From piety to an Islamic socio-political-economic system*. Thailand: Silkworm Books.
- Shaikh, Salman Ahmed. 2016. “Zakat Collectible in OIC Countries for Poverty Alleviation: A Primer on Empirical Esti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1(1): 17-35.
- Shaikh, Salman Ahmed. 2018. “Capitalizing on Economic Function of the Institution of Zakat in Modern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1(1): 33-49.
- Shikh, Salman Ahmed and Abdul Ghafar Ismail. 2017. “Role of Zakat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2(2): 1-9.

- Singer, Amy. 2008. *Charity in Islamic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wage, Dharma Negara. 2019. “The Indonesia Economy under Jokowi’s Second Term.” *ISEAS Perspective* 42. 1-9.
- Sulaeman, Sri Yuyu Ninglasari. 2020. “Analysing the Behavioral Intention Factors in Using Zakat-Based Crowdfunding Platform in Indonesia: A Quant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Zakat* 5(3): 1-19.

<인도네시아 법령, 국가정책 보고서 및 관련 사이트>

Undang-Undang RI Nomor 38 Tahun 1999 Tentang Pengelolaan Zakat
Undang-Undang RI Nomor 23 Tahun 2011 Tentang Pengelolaan Zakat
KPPN/BPENAS. 2018. *Masterplan Ekonomi Syariah Indonesia 2019-2024*. Jakarta: KPPN/BPENAS.

Bank Indonesia(BI). 2019. *The Role of the Government: Zakat Development in the Era of Industry Revolution 4.0*.

<https://www.puskasbaznas.com/images/OfficialNews/191003-The-Role-of-Government-in-Zakat-Development-in-the-Era-Industrial-Revolution-4.pdf>(검색일: 2020년 8월 10일)

국제투명성기구 <https://www.transparency.org/en/countries/indonesia>
(검색일: 2021년 10월 20일)

아시아개발은행 <https://www.adb.org/countries/indonesia/poverty> (검색일: 2021년 10월 20일)

MUI <https://mui.or.id/>

BAZNAS <https://baznas.go.id/>

FOZ <https://forumzakat.org/>

KNEKS <https://knks.go.id/beranda>

40 동남아시아연구 31권 4호

IAEI <http://www.iaei-pusat.org/>

MES <https://www.ekonomisyariah.org/>

(2021.06.23. 투고, 2021.07.19. 심사, 2021.11.15. 게재확정)

<Abstract>

Islamic Economy Based on ‘Maqasia’ in Indonesia: Zakat and Zakatnomics Practice

Choi Kyung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 of the practice of Zakat and Zakatnomics in Indonesia. The Indonesian Islamic Economic Movement, which started in the 1980s, was not a movement that was faithful to the Islamic economic principle from the beginning, but rather a people economic movement that raised the economic demand for the majority of the poor and the concentration problems of wealth by the minority. At the same time, various Muslim organizations and student groups have attempted to revitalize Islamic economic seminars and banks and financial systems based on Islamic financial principles. The first Muamalat Islamic Bank (BMI), which was launched in 1991, noted the three groups as the result of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 and bureaucracy groups centered on Suharto, Islamists and intellectual groups assembled with MUI and ICMI, and civil society groups that attempted the Islamic Economic Movement. The Forum of Zakat(FOZ), which emerged in the process of revitalizing the Islamic economic movement, made a remarkable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the first Zakat Law in 1999. Based on this experience, Indonesia has established

the structure of BAZNAS and LAZ, which are the basic structures of Zakat Law in 2011. The breakthrough in the Indonesian Islamic economy is regarded as the ‘Sharia Economic Master Plan’, which is being pursued by the second government of Jokowi. In other words, the Jokowi government intends to create a new economic growth engine by expanding the Islamic economic principles beyond the scope of Islamic banks and finances throughout the industry and is to be promoted at the national level by creating the Zakatnomics concept that seek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Zakat. This is also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s of the three groups of actors mentioned above. In the end,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ractice of Zakatnomics is whether the Zakat can be collected in reality as expected. This is why the pursuit of the Sharia economy in Indonesia will be a result of solving poverty problems, transparent and fair economic activities, and social welfare.

Key Words: Indonesia, Maqasid-al Shariah, Zakat, Sharia Economy Masterplan, Zakatnomics